

마사 누스바움의 혐오감정 재구성과 시민교육적 함의: 혐오감정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황옥자**

이 글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깊게 관여하지만, 제대로 포착되지 못한 ‘혐오감정’에 입각해서 공동체의 위기를 바라보는 정치철학자는 어떠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 정치, 철학, 문학, 윤리의 전 영역에서 ‘감정’의 가치를 평가하고 적용한 마사 누스바움(Nussbaum, Martha C)의 ‘혐오감정’ 개념을 재구성한다. 구체적으로 이성 지배의 공적 영역에서 감정이 어떻게 사회 정의에 관여하는지를 개관하고, 지양되어야 할 비합리적 감정으로서 혐오 감정의 발생원인(내용), 그것의 사회화, 정치화 과정을 전개한다. 혐오에 대한 누스바움의 서사적 통찰을 통해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혐오감정을 반성적으로 사유해 보면서, 공감과 공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혐오 감정의 정치철학적 의미를 공론화하고, 그에 대한 교육적 대안으로 ‘감정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마사 누스바움, 혐오, 감정교육, 감정시민교육, 소크라테스, 루소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0S1A5B5A17090763).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1. 혐오감정과 정치

한국사회에서 혐오는 혐오표현을 중심으로 2010년대 초반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일베' 사이트를 중심으로 여성,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현상이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홍성수 2017). 2016년 소위 '강남역 살인사건'이 불특정여성에 대한 혐오범죄로 알려지면서 혐오감정은 혐오표현으로, 그리고 이것이 혐오범죄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가속화했다. 혐오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2019년 코로나19 이후 혐오는 더욱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팬데믹 선언 이후 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코로나19는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 살고 무엇을 믿는지 구별하지 않지만, 팬데믹은 “혐오의 쓰나미”를 몰고 온다고 강조 한 바 있는데,¹⁾ 실제로 “온라인과 길거리에서 반(反)외국인 정서가 급증하고, 반유대인적인 음모론이 확산” 되었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반무슬림 공격 또한 발생”했다.²⁾ 혐오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전염병 발생 초기 국내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는데, 중국 동포가 모여 사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은 그야말로 혐오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대림 중앙시장을 두고 '비위생적', '노점상', '위생 불량 심각', '가래침' 등 표현을 써가며 보도했다. 우리가 괴물이나는 중국인들의 외침은 불가촉천민을 연상케 하였다.³⁾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것에 대한 극단적인 감정인 이 혐오는 전염병의 확산 방향에 따라 오염되지 않고자 하는 집단들에 의해

1) 출처: 뉴시스, 2020.05.05 <https://www.news1.kr/articles/?3929243>

2) 출처: 아시아 경제, 2020.05.08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50821205171957>

3) 출처: 아시아경제, 2020.04.28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42810414902197>

광범위한 외국인 혐오로 확대되었다.⁴⁾ 유래없는 세계적인 전염병 현상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혐오표현, 그러나 이에 대한 무감각은 역설적으로 이제는 혐오를 문제화하고, 이것이 좀 더 포괄적으로, 심도있게 공론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예시한다.

혐오와 관련하여 기존의 사회과학 분야의 논의들은 주로 혐오‘표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온라인상의 혐오표현 현상에 관한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 그리고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법적 논의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혐오의 특정 대상을 다루는 논의들이 그것이다. 혐오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대체적인 결론은 법적제재다.⁵⁾ 이러한 접근은 혐오범죄나 표현을 줄여들게 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손상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그것의 실질적인 효과, 즉 혐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단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다시 숨게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혐오범죄나 표현이 줄었다고 해서 혐오감정이 줄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혐오의 표면적인 부분에 기대어 처벌을 가하는 것은 혐오가 ‘악의적으로 투사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킨다. 문제는 혐오가 아니라 혐오가 ‘투사’되고 ‘정치화’되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인들의 폭력적이고

4) 미국의 아시안 아메리칸 유스 카운슬(Asian American Youth Council·AAYC)에서는 ‘아시안 혐오 범죄 예방 캠페인’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출처: 중앙일보, 2020.05.05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266757

5) 관련하여 홍성수(2019)는 혐오표현에 국가개입은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반드시 형사범죄화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다. 그는 형태에 따라 개입의 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혐오표현의 해악이 심각한 공적영역에서는 금지정책을, 혐오표현이 야기하는 폭력과 차별을 막아 다음 단계로 이행되는 것을 차단하는 개입, 마지막으로 대항표현 활성화를 통해 자정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홍성수, 2019. “혐오표현의 해악과 개입의 정당성: 금지와 방치를 넘어서.” 「법철학연구」 제22권 제3호.

혐오적인 발언에 노출된 사람은 일반적인 정치적 폭력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더욱 위험한 것은 혐오를 가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정치적 폭력을 스스로 더욱 정당화시킨다는 것이다(N.P.Kalmoe 2014). 편견을 가진 정치인의 연설은 특히 강력한데, 이에 노출된 사람이 숨겨왔던 자신의 편견들을 선언하고 그에 따라 더 대담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새로운 현상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최근 혐오는 미디어의 강력한 영향으로 과거와는 비견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인 방식으로 더 빠르게, 더 악하게, 더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⁶⁾

이 글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깊게 관여하지만, 제대로 포착되지 못한 ‘혐오 감정’에 입각해서 공동체의 위기를 바라보는 정치철학자는 어떠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 정치, 철학, 문학, 윤리의 전 영역에서 ‘감정’의 가치를 평가하고 적용한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의 ‘혐오감정’ 개념을 재구성한다. 그녀는 혐오감정에 인간이 지닌 취약성, 유한성, 동물성이 있음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상상력과 연민을 통해 우리 모두 분별 있는 관찰자(judicious spectator)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인간성(Humanity)에 대한 끈질긴 요구를 담고 있는 누스바움의 견해는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혐오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사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이 글은 이성 지배의 공적 영역에서 감정이 어떻게 정의에 관여하는지를 개

6)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을 계기로 유대인이나 무슬림을 혐오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콘텐츠가 소셜미디어에서 급증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2023년 11월 7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히틀러가 옳았다'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한 달 만에 여기에 4만6천개 넘는 게시물들이 달렸다. 출처: 연합뉴스, 2023. 11. 16.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42810414902197>

관하고, 지양되어야 할 비합리적 감정으로서 혐오 감정의 발생원인(내용), 그것의 사회화, 정치화 과정을 재구성해 본다. 혐오에 대한 누스바움의 서사적 통찰을 통해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혐오 감정을 반성적으로 사유해 보면서, 공감과 공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혐오 감정의 정치철학적 의미를 공론화한다. 또한 그에 대한 교육적 대안으로 자기검토를 통한 비판적 사고라는 소크라테스식 제안, 타자에 대한 연민이라는 루소식 제안을 중심으로 '감정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감정은 정의(Justice)가 될 수 있는가?: 부정의한 감정과 정의로운 감정

롤즈의 『정의론』(1971) 출간 이후 정치적 영역에서 정의(justice)의 문제는 이성에 기반한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롤즈는 무지의 베일을 상상하면서 정치적 공론의 장에서 자신의 사적인 모든 신념들을 배제하라고 주문한다(롤즈 2016). 그러나 누스바움은 감정의 공적인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기존의 정의 담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감정이 가지는 한계와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회정의에 대한 매우 강렬한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한다. 즉 감정은 “정의로운 행동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제공”해 준다(누스바움 2016, 17). 누스바움은 정의로운 감정이 우리가 어떤 문제에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도덕과도 밀접하게 연관을 맺는다고 본다. 이에 따라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 근거하여 감정이 비합리적이며 공적인 속고 과정의 지침이 되기에 부적합하다는 일반적인 주장에 대해 반박

하면서 합리적 감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누스바움 2013, 127-158).

첫째 감정은 최소한 어떤 것이든지 부분적으로는 지각 방식을 의미한다. 둘째, 감정은 대상에 대한 특정한 믿음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데, 이 믿음이 틀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믿음을 다 제거할 필요가 없듯이 감정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속고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셋째, 우리 모두가 외적 좋음과 나쁨에 연루된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감정을 통한 인간의 이해는 계산적 지성의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방식이 옳은 방향을 잡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합리적 감정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필수적일 수밖에 없기에 우리 모두는 그러한 감정을 추려낼 수 있는 '분별 있는 관찰자' 가 되어야 한다(누스바움 2013, 159-160).

(관찰자는) 가능한 한 자신을 상대방의 입장에 놓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모든 사소한 사정까지도 진지하게 느껴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자신의 친구가 처해 있는 모든 사정을 아주 사소한 일까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공감의 기초가 되는 역사사지를 최대한 완전히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애덤스미스 2009, 29-30).

감정이입은 고통받는 사람의 경험을 '상상을 통해' 재구성해보는 것을 의미한다. 누스바움 철학에서 '상상력'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것은 다양한 집단 구성원의 상황을 상상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자유로운 민주사회가 중시하는 '평등한 존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누스바움 2016, 89). 다만 상대에 대한 감정이입과 공감만으로 분별있는 관찰자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감정은 일반적으로 가까운 것들에 대해 극도로 편향된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기에 합리적 감정은 편향성을 지니지 않고, 사건에 대한 참된 관점(사실 정보와 중대성, 왜곡 불가능성)에 근거해야 하며,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가 아

난 관찰자의 시선이여야 한다(누스바움 2013, 161-163). 이러한 관찰자의 시선 역시 ‘상상의 결과’로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은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들’에 대한 특정한 사유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감정의 원천으로 이해되는 감정이입을 의미한다.⁷⁾ 예컨대 고통을 겪는 사람과 나의 반응을 “융합되어 있는 것”으로 상상하지 않아야 하며, 고통받는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고통받는 사람에게 고통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핵심적이다.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위치를 상상해보는 동시에 나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의식을 간직해야 한다(누스바움 2015a, 597-598).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분별있는 관찰자들은 악의적인 감정에 대한 비판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게 되고, 감정이 공적 판단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정의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고현범 2016, 137).

그렇다면 정의를 방해하는 비합리적인, 혹은 부정의한 감정은 어떤 것인가? 비판의 대상이자 관찰자의 시선으로 반드시 분별해내야 하는 감정으로 그녀는 특히 ‘혐오’에 주목한다. 공감과 연민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에는 질투심, 수치심, 혐오감이 있는데, 혐오감이야말로 공적 삶에서 특히나 의심쩍고 신뢰할 수 없는 감정이다. 그것은 동물이 아니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데, “전염이라는 신비적 생각과 순수성, 불멸성, 비동물성에 관한 불가능한 열망”을 담고 있어, 전형적으로

7)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들’을 상상하는 데에 문학작품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문학적작품을 읽고 공감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감정을 생산하기때문이다. 1. 등장인물에 대한 감정(등장인물의 감정을 공유, 감정에 반응하는 것), 2. 내포 작가(Implied author)에 대한 감정(그러한 인생관을 공유하는 것, 동정적이거나 비판적으로 반응하는 것). 3.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한 감정이다. 2001. *Upheavals of Thought: The Intelligence of Emo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국내에는 조형준 옮김, 2005. 『감정의 격동』, p.438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9장)에서 언급했던 것이기도 하다.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누스바움 2015b, 36). 하지만 혐오가 우리의 공적 삶에서 지양되어야 하는 것임과 동시에 공론화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혐오는 모든 사회에 존재하고, 모든 사회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누스바움 2015a, 762-763; 2015b, 139).

정의 개념 안에 감정을 가치로 평가하는 접근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누스바움의 주장은 혐오감정이 사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과 언론, 혹은 사회적인 어떠한 내러티브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생산 되어왔음을 포착하고 있다. 더욱이 그러한 혐오감은 수치심과 짝을 이루면서, 특정 집단 혹은 범죄인에게는 수치심을 심어주고, 타인은 그들을 혐오하게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계층적이며, 본질적으로 자유에 제한을 가한다. 때문에 평등과 자유라는 민주적 가치와 정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감정에의 호소를 깊이 의심해야 한다.⁸⁾

3. 혐오감과 혐오의 정치

1) 원초적인 혐오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혐오감정은 일차적으로 주체 안에서 발견되며, 그 원초적 대상은 ‘동물적인 것’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더럽고, 악취를 풍기며, 끈적끈적하고, 흘러내리는 것들_땀, 콧물, 피, 오줌, 배설물, 정액, 생리혈, 구토물_로 주체가 동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상상하게 만들며, 인간의 취약함과 죽음을 상기시키는 시체를 떠올리게 하는 대상들이다(누스바움 2019,

8) 2004년 7월 15일, "Discussing Disgust" 인터뷰 내용.
<https://reason.com/news/show/33316.html>

292). 인간의 동물성과 유한성을 일깨우는 ‘원초적 대상’들은 죽음과 부패와 관련된 것들이다. 한마디로 혐오는 동물적인 것에 대한 기피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안과 밖의 경계를 흐리는 그 동물적인 것을 주체는 혐오함으로써 내 안의 낯선 것들을 이질적인 것으로 만들어 몸에서 추방하고자 한다. 순수에 대한 욕망, 불멸에 대한 욕망, 고정된 정체성을 지향하는 주체에게 경계를 무너트리고 탈주하는 그 ‘비체’는 그 자체로 공포이며 혐오의 대상이기 때문이다(임옥희 2016, 93). 유일하게 신체 분비물 중 눈물만이 혐오의 대상이 아닌데 그것은 눈물이야말로 인간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동물과 같다’라는 생각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이다(누스바움 2015b, 169; 2016, 54). 혐오에 담긴 핵심적인 관념은 ‘오염이나 전염’에 대한 공포이기에 혐오의 대상은 ‘오염물’로 여겨져야 한다. 종이나 국화꽃은 우리가 먹기에 부적절하다고 여기기는 하지만 혐오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이 원초적인 형태의 동물적인 것에 대한 혐오는 그 자체로는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것은 주체 자신의 신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감정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물적 본성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이다. 이는 “우리가 동물적 존재라는 사실이 도덕적 문제의 주된 원인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⁹⁾ 그러나 이러한 혐오가 자신의 불완전성에 대한 불인정으로 흘러가게 되면 주체의 ‘몸’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원초적 혐오가 타자로, 타자의 몸으로 확장되는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9) 누스바움은 칸트의 ‘근본악’ 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회적 존재 이전에 이미 인간 본성 그 뿌리 자체에 근본적으로 악이 자리한다고 설명한다(악에 대한 경향성). 물론 인간은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타인을 동등한 존재로 목적 자체로 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선에 대한 경향성). 이것은 ‘사회적 존재’ 이전의 것이기에 이 악을 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때의 악함을 ‘중립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누스바움, 2019, 266-267).

동물적인 것과 접촉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비동물성에 관한 욕망이 내 몸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불결한 것들에 대한 혐오는, 자주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의심스러운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된다. 원초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가 ‘이성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고 확장되는 데 이러한 확장된 혐오를 누스바움은 “투사적 혐오”라고 부른다(누스바움 2016, 54). 주체는 오염된 자와 오염되지 않는 자를 구분짓고 순수한 자와 순수하지 않는 자를 경계 지우면서 오염되지 않는 자아라는 상상을 구현한다. 내 몸의 불결한 것을 추방하는 것에서 이제 이질적인 것으로 타자를 추방하고자 한다. 이러한 혐오의 투사는 인간 개인의 단순함 취약성이 아니라 완전무결해지려는 유아기적 소망, 즉 ‘유아적 나르시시즘’과 같은 원초적 형태의 불안감에서 시작한다(누스바움 2019, 291). 그것은 대상에 대한 주체의 지각에 강하게 영향을 받기에 동물적 비접촉에 관한 감각적 불쾌감과 다르며, 타인을 이용하는 단 한 가지 방식으로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점에서 대부분 인간에게 악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아의)나르시시즘은 대부분의 인간 삶에 악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까지 나아간다. 사람들은 탐욕스럽게 자신만의 안정과 만족을 추구하고, 타인의 주장은 무시하며, 심지어 타인을 자신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노예 계층으로 전락시키고자 애쓰기도 한다. 만일 한 번도 굶주리거나 헐벗은 적이 없고 무력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의존해 본 적이 없는 천사가 있다면, 그러한 존재는 탐욕을 갖거나 자신만의 번영을 좇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것이다. (중략) 결국 이것이 본질적으로 ‘인간부정’에 해당된다(누스바움 2019, 276-279).

구체적으로 투사적 혐오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표적화하여 불평등한 서열화와 위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악의적이다. 인간다운 나와 동

물적인 너를 구분하고, ‘더 동물적’인 하위계층을 구분하면서, 이들을 배제하고, 낙인찍는다. 낙인 행위의 핵심은 타자를 ‘비인간화’하는 것이다. 물론 사회에는 낙인을 찍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혐오는 가장 강력하고 중심적인 방식이다(누스바움 2016, 56). 이때 권력을 가진 주체는 혐오를 복종의 핵심장치로 사용하면서, 불결함과 역겨움을 불러일으키는 동물적인 특성들을 흑인, 여성, 하층민, 유대인, 동성애자와 같은 특정 집단에 귀속시킨다. 인간이 동물적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그 참을 수 없는 불결함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향해 투사되는 것이다. 투사적 혐오는 특정 집단을 계층화하여 낙인찍고 배제하면서 그들을 복종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인권이나 인간 존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누스바움 2015b, 144). 감염되지 않으려는 주체의 욕망이 특정 집단에 대한 역겨운 혐오를 이용하여 박해의 정당화로 역사에서 사용되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감염이 될지도 모른다는 주체들의 순수함에 대한 그 ‘상상’이 거리의 불량자, 동성애자, 정신병자 등을 오염집단으로 가정하고 그들을 배제하고 낙인찍고 추방하고 학살해 온 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는 목격했기 때문이다. 사회는 이런 방식으로 순수함을 인정받는 쾌감을 얻으면서 순수/비순수의 경계를 더욱 견고하게 쌓아갔다. 이방인에 대한 많은 사회의 혐오는 여전히 순수하고자 하는 사회적 욕망의 반영이며, 자신의 취약함에 대한 원인을 나와의 ‘다른 것’에서 찾고자 하는 끈질기고 그릇된 욕망이 투영된 결과다. 여기에서 누스바움은 혐오의 사회적 맥락을 잘 지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혐오는 단순하게 사회적으로 용인된 경계를 무너뜨리는 “비정상(anomy)”에 대한 경계가 아니다. 또한 그것은 전염에 대한 일반적인 혐오가 ‘역겨운 대상이 입을 통해 들어온다는 불쾌감’에 제한되어있는 것도 아니다. 혐오감정은 단순히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비정상에 관한 놀라움, 그 이상이며 이것은 오히려 비정상에 대한 자신의 불안, 즉 정상(이고자 하는)에 대한 자신의 상상이

투영된 것이다. 또한 혐오감정은 혐오물질이 입을 통해 내 몸에 직접 들어오는 것에만 제한적이지 않다. 그것은 세상과 나를 경계 짓고자 하는 ‘접촉적인 감각’과 관련이 있기에 미각은 물론이고 촉각과 후각이 모두 혐오감정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나아가 혐오는 인지된 ‘위험’과도 다른데 독버섯의 독이 제거되면, 즉 위험요소가 사라져 그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지만 모든 혐오대상은 그 위험이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혐오스러운 것으로 남기 때문이다(누스baum 2015b, 166-175).¹⁰⁾ 이러한 이유에서 혐오감정은 대상이 가진 감각적 요소에만 머물지 않고, 대상에 관한 주체의 인식, 즉 ‘관념적 요소’에 의해 유발된다. 그것은 그 대상에 관한 특정한 관념들을 형성하는 사회적 속성과 대상에 대한 편견 등의 사회적 기원, 역사로 구성된다.

투사적 혐오가 가진 위험성은 동물적인 것에 대한 비접촉을 통해 다른 복잡한 연계망을 거쳐 다른 대상에게 확장된다는 점이다. 혐오의 사회적 확장은 한번 접촉했던 사물은 이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전염의 법칙, 두 가지 사물이 비슷하면 하나가 오염되면 다른 하나도 영향을 받는 유사성의 법칙이 적용된다.¹¹⁾ “공감적 주술”로 불리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누스baum 2016, 54-55, 61), 역사적으로 차별받고 낙인 찍혀 배제되었던 모든 몸들_ 여성의 몸, 동성애자(특히 남성 동성애자)의 몸, 유대인의 몸, 흑인의 몸, 인도 달리트의 몸_이 혐오의 집중

10) 혐오는 이 점에서 단순한 ‘기피’와 ‘위험’과는 다른데, 기피가 감각적 요소에 의해 유발되는 부정적 반응이라면, 위험은 해로운 결과가 예상되어 거부하는 것이다. 유아는 자신의 배설물에 대해 처음에는 기피를 배우지만 타인들이 드러내는 배설물에 대한 혐오를 반복하여 경험하게 되면서 혐오를 공유한다. 이 때문에 혐오는 기피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누스baum, 2015b:167,179).

11) 전염의 법칙의 예는 소독된 파리채로 저은 스프, 전염병에 걸렸던 사람이 입었던 옷이 잘 세탁되었어도 거부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유사성의 법칙은 만일 A가 혐오스러운 대상이라면, A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B도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술에 죽은 바퀴벌레가 있는 것을 보았다면, 그와 비슷한 종류의 주술도 마시지 않는 것이다.

적인 타깃이 된다.¹²⁾ 여성의 몸은 출산을 담당하는 동물적 속성의 유한성과 연결되며, 남성의 혐오의 대상이 되는 정액이 자신의 몸을 빠져나와 여성의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남성들은 여성이 오염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여성은 냄새나고, 끈적거리고, 유약하고, 불결한 존재로 '상상되어' 왔다. 남성 동성애자를 향한 혐오 역시 이러한 '동물적 부산물의 저장고'로 상상되어져 왔다(누스바움 2015b, 207-208). 이는 혐오가 사회적 교육과 전통의 결과이자 정교한 사회공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2) 두려움의 정치와 혐오의 만남

투사적 혐오가 전염성의 법칙, 유사성의 법칙에 의해 확장되고 이것이 정교한 사회공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누가 왜 혐오를 지지하는 것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회정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른 견해와 연결된다. 누스바움은 혐오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데블린(P.Devlin) 판사의 견해를 소개한다. 그는 「The Enforcement of Morals」(1959)을 강연하면서 쌍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성인 간의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는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회의 보존"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모순이 없는" 개인의 자유여야 한다. 공통된 도덕성, 혹은 확립된 도덕성을 사회가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해체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에 대

12)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혐오에서 인류애로』(2016) 제1장, 특히 '역사 속의 혐오:낙인찍기의 예측화(61-68) 참조.

한 적절한 도덕규범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데블린의 입장이었다(누스바움 2015b, 146). 그러나 자유주의적 입장 역시 이러한 공유된 도덕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단일한 형태의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형태가 아니라 오직 ‘정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도덕성’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누스바움 역시 자유주의적 맥락에서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면서, 집단의 배제를 통한 특정한 형태의 도덕과 자유만이 공유된 도덕성이라는 데블린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한다. 데블린은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중독된 상태’로 동성애자를 ‘중독자’로 표현하면서 비도덕성이 사회에 해악을 가져온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누스바움은 그의 증명이 틀렸다고 말한다. 동성애자를 대중적으로 용인하면 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타락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으며, 그것이 그의 생각처럼 사회를 전염시켜 사회가 붕괴된다는 것도 너무 불명확한 주장이었다. 만약 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그들의 어떠한 행동이 악한 속성을 갖는 것인지, 그들의 어떤 행동이 도덕적이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혐오하고 배제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 즉 혐오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평가방식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누스바움 2015b, 148-149). 결국 동성애가 혐오스러운 행위이며 그것이 사회의 타락을 가져온다는 주장은 사실 그들의 몸에 접촉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시 말해 동물적인 것에 대한 전염의 공포를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투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¹³⁾ 두려움은 늘 있었던 현상이지만, 주체가 느끼는 이 두려움이 사회의 다른 취약한 집단에 투사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것은 가장 강력하고 손쉬운 방식으로 혐오를 선택한다. 그런데 이 혐오를 통한 두려움의 해소방식이 정치와 만나면 어떤

13) 실제 데블린은 동성애를 ‘항문성교(소도미)’와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면서, 그것은 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로 ‘감금’의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일이 벌어지는가?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는 유대인에 대한 히틀러의 사고에서 찾을 수 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명백히 깨끗하고 건강한 독일 민족의 몸속에 숨겨진, 썩어가는 시체 속의 구더기”로 묘사한 바 있다(누스바움 2015b, 205-206). 유대인을 혐오스러운 동물로 묘사하여 탈인간화시키고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사회를 파괴하는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히틀러와 같은 강력한 정치지도자의 발언이 소위 “공감적 주술”을 걸면서, 마법적인 힘으로 대중이 가진 혐오감정을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믿게 한다는 점이다.¹⁴⁾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트럼프는 특별히 두 가지 관점에서 혐오를 조장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장시켰다. 첫째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¹⁵⁾ 명목으로 실시된 반이민 혐오 조장, 둘째는 노골적인 반여성혐오 조장 발언이다. 먼저 그는 2017년 취임 직후 불법 이민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취임 첫 주에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 비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남부 국경 장벽 건설 등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현실화했다. 최근 2023년 9

14) 송희영(2017)의 연구에 따르면, 히틀러의 연설이 가진 비언어적 장치들, 예컨대 웅장한 불빛과 캠프파이어, 서치라이트, 특히 음악 등이 대중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특별한 분위기에 빠지게 하는 최면의 효과를 가져와 히틀러에 대한 대중의 숭배와 경외심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통치자의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만”들어 대중을 열광과 도취의 도가니에 빠지게 한다. 송희영. 2017. “히틀러의 연설, 열광과 도취의 도가니.” 『카프카연구』. 37. pp. 149-150.

15)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표현은 사실상 ‘백인우선주의’에 다름아니다. 그는 “정치적 올바름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미국이 여전히 위대하다고 여길 위선의 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이혜정, 2017 재인용). 이는 당시 트럼프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사건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에 대한 출생지 논쟁과 대통령 출마 자격 요구, 즉 버써운동(Birther Movement)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도 그의 철저한 백인 인종주의 면모를 볼 수 있다. 당시의 “정치적 올바름은 정직하지 않다. 다양성은 백인학살의 언어다(Political corectenesse is not honesty. Diversity is a code word for whitegenocide)”라는 슬로건 또한 이를 잘 반영한다.

월, 아이오와 연설에서는 그는 재선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이민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경에 악어 6마리를 풀어놓은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였다(『조선일보』 2023). 또한 2016년 ‘(나는) 당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트럼프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노골적인 여성, 이민자,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넘쳐났다.¹⁶⁾

트럼프가 활용하는 두려움의 정치는 대중에게 자신이 처한 다양한 어려움이 사실은 이민자와 여성에 기인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며, 그들을 타자화하고 잠재적 적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을 기피의 대상,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는 두려움의 정치가 타인을 노예로 만드는 것 이외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시켜준다.¹⁷⁾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은 정치적 양극화를 증가시키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더욱 많다는 경험적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후보의 발언으로 촉발된 반이슬람 담론은 2016년 소셜미디어에 확산되었고, 팔로워들은 반이슬람 트윗을 늘렸으며 무슬림에 대한 증오범죄는 32%까지 증가하였다.¹⁸⁾ 현대의 다양한 불평등, 사회의

-
- 16) 당시 민주당 클린턴 선거운동의 한 담당자는 그의 연설이 전반적으로 “공포를 불러 일으킨다”고 비난하기도 하기도 하였으며(huffpost, 2016), 여성단체를 주축으로 미 역사상 대통령 취임식 관련 시위 중 가장 규모가 큰 ‘여성의 행진’ 시위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 17) 트럼프의 여성혐오가 어떻게 백인 남성 유권자를 끌어들이게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다음을 참조. Nussbaum, Martha C. 2018. *The Monarchy of Fear: A Philosopher Looks at Our Political Crisi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6장의 논의.
 - 18) Karsten Müller, Carlo Schwarz, 2020. “From Hashtag to Hate Crime: Twitter and Anti-Minority Sentiment.”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vol.15, no.3. James A. Piazza, 2020. “Politician hate speech and domestic terrorism.”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46. (431-453)

범죄와 도덕적 불안은 정치가 해결해야 하지만 정치는 오히려 이 불안을 조장하고, 혐오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문제를 특정 집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철학의 빈곤, 앙상한 정의 담론은 이 강력한 두려움과 혐오의 만남을 저지할 능력이 부족하고, 이때 민주주의에 오류가 발생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안녕을 위해 타인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는 ‘편협한’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다(누스바움 2021, 78). 그 사고는 오직 자기 신체에 집중되어 있는 지독한 ‘자기애적 감정’이며, 군주적인 것이다. 동시에 대중에게 집단적 두려움을 형성키는 군주는 공포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공포의 부당이득자”가 된다(캐롤린 엠케 2017, 90). 두려움을 이용한 정치지도자의 선동은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확산되는데, 이것은 효과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게 된다. 히틀러가 광장에서 두려움과 혐오를 ‘주술적’인 수사적 방식으로 확산시켰다면, 현대에는 각종 미디어가 광장을 대신하면서 더 빠르고, 더 폭넓고, 더 강력하게 인간 감정을 악의적으로 통제하고 편집하고 있다.¹⁹⁾ 미국에서 트럼프를 통해 극도로 표출되었던 시민들의 혐오표현들은 그것이 없어졌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정치인의 혐오발언이 잠재되었거나 내적으로 꿈틀하고 있었던 혐오감정을 밖으로 꺼내준 것이다. 그로 인해 그들은 트럼프를 통해

19) 2020년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바이러스’라는 문구를 올렸고, 이와 동시에 이 용어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Yulin Hswen, et al., 2021. “Association of “#covid19” Versus “#chinesevirus” With Anti-Asian Sentiments on Twitter: March 9-23”,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AJPH) May 2021*. 또한 2018년 CNN 기사에 따르면, 2010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50개 주 모두에서 혐오 집단이 발견되었고, 2014년 이후 미국 혐오 단체의 수가 20%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혐오 확산의 주된 배경은 온라인(SNS, 비디오플랫폼, 온라인펀딩, 웹사이트, 다크웹)이다. 출처: CNN, 2018.5.2. (<https://edition.cnn.com/2018/05/02/us/hate-groups-using-internet/index.html>)

내 세계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을 배설하는 쾌감을 느낀다. 트럼프는 혐오 발언을 통해 그들에게 두려움을 유발하고, 두려움을 통해 혐오 감정을 선동한다. 누스바움은 두려움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을 비판하고 트럼프의 선동행위에 분노하면서 철학자들이 철학적 방식으로 정치적 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두려움이 혐오와 만나면 어떠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지에 관한 논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뿐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민주사회의 공통된 위기로 인식할 수 있기에 혐오를 대하는 민주적 원칙들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누스바움은 증오나 분노와 같은 파괴적인 감정은 “사회로부터 배우는 것”이라는 감정의 후천성을 강조하기에 이는 자연스럽게 시민교육의 문제로 연결된다(Nussbaum 1998, 65).

3. 누스바움 이론의 시민교육적 함의

1) 소크라테스적 자기검토와 대화를 통한 비판적 사고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적 명제는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메타인지’에 그대로 인용되곤 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을 감독하고 사고하는 과정으로 공부효율과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자기주도학습법이라는 주된 학습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자기 검토와 통제가 타인에 대한 공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포함하고 있다(허수미

2012). 누스바움은 플라톤을 “자기비판을 할 줄 아는 용감한 철학자”로 지칭하면서, 자기검토는 ‘대화’를 통한 비판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화는 서로를 검증가능하게 하고 말미에는 문제의 본질뿐 아니라 선택의 본질까지 명료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누스바움 2023, 217-218).²⁰⁾ 이부분에서 누스바움은 전통적인 소크라테스적 자기검토를 살짝 비틀어 해석한다. 플라톤 저술에 나타나는 소크라테스의 자기검토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방식으로 행해지지만, 누스바움은 “검토하는 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필요로 말미암아 대상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검토”하기 때문이다(누스바움 2016b, 93). 다시 말해 소크라테스의 자기검토 방식이 타자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방식이었다면, 누스바움은 검토하는 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대상에게 질문하는 방식이다.

자기검토와 ‘대화’를 통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누스바움은 고대 아테네 민주정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정치체제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면서 민주정을 최선자의 정체에서 3번째나 떨어진 곳에 놓는다.²¹⁾ 민주정에 대한 플라톤의 판단은 당시 아테네 민주정이 자유에 취해 훌륭한데는 신경쓰지 않은 채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라 부르는 무정부 상태였다(『국가』 556c, 558a-c). 가치있는 삶에 대한 열망의 부재, 나와 다른 다양성,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조화와 공존에 대한 무관심이 이러한 자유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민주정 직후의 체제

20) 누스바움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를 특별히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줄곧 소크라테스의 견해를 플라톤의 견해로 이해하고 있다.

21) 플라톤 『국가』 8권에 등장하는 정치체제 구분은 최선자의 정체에서 점진적으로 쇠퇴해가는 과정을 그리는데 처음으로 변질된 형태가 명예지상정체, 다음으로 과두정체, 민주정체, 참주정체 순이다. 플라톤, 박종현 옮김, 2004. 『플라톤의 국가 · 政體』, 서광사, 제8권 참조.

를 참주정으로 구분한 플라톤의 견해에서 누스바움은 “도시의 주된 정책 목표들을 거의 검토(질문)해보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가치 있다고 여긴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서로 조화롭게 할 것인지도 거의 체계적으로 검토(질문)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누스바움 2016b, 93). 아테네 민주정의 자유가 그 어떤 검토과정을 생략한 채 대중 스스로의 자유에 취해 참주정을 허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스스로 질문해보지 못한 이들은 타락한 군주에게 손쉽게 종속되고 만다. 대중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는 정치지도자의 존재와 힘은 질문하지 않은 대중에 의해 수월성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그렇기에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통한 자기 검토라는 소크라테스식 사유방식은 일종의 “사회적 실천”이어야 한다(누스바움 2016b, 102). 이것은 어떻게 실천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녀는 소크라테스식 가치들이 교양 교육으로 가르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단순하게 이상적으로 남아 있는 것만은 아니라며 다양한 실천적 사례들을 소개한다.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저술을 통해 누스바움은 역사에서 주입식 교육에 대한 수많은 반작용이 발달되어 왔으며, 그것을 소크라테스식 질문법 이상이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스위스의 교육가 페스탈로치는 ‘공감과 사랑’이 교육에 중대하다고 여겼으며, 그의 이상적 교육자가 소크라테스와 같은 지적 자극자였다는 것이다. 독일의 교육가 프리드리히 프뢰벨 역시 어린이들을 활동적이고 탐구적이며, 질문하도록 부추긴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의 가치가 구현되고 있다고 본다. 그녀는 소크라테스 교육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실천가를 존 듀이로 상정하고 있으며, 191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도의 타고르 역시 소크라테스식 교육법의 실천가로 소개한다. 듀이의 경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과제들을 직접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질문을 만나

게 되고 이는 비판적이며 상호 존중할 줄 아는 협동을 키워주는 민주적 시민 양성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타고르 역시 『민족주의』, 『인간의 종교』를 통해 “포용적 공감 능력을 함양함으로써만 인류가 진보할 수 있으며, 그러한 능력은 오직 전인교육, 예술, 그리고 소크라테스식 자기 비판을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서만 함양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누스바움 2016b. 104-133).

검토하지 않는 삶은 인간으로서 갈 가치가 없다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기초로 누스바움은 저술, 『인간성 수업』에서 소크라테스식 교육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추려 정리하고 있다. 첫째 소크라테스식 교육은 모두를 위한 것이고, 둘째 소크라테스식 교육은 학생의 상황과 맥락에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다원성으로 이것은 상이하고 다양한 규범과 전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소크라테스식 교육에서는 책이 권위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00추천 도서’, ‘명저’라는 권위에 휘둘러 문화적으로 권위 있는 많은 자료들과 저술들을 무비판적으로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독자가 자료를 내면화한 뒤 자신이 매우 지혜롭다고 믿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교육에 있어 수동적인 청자로 남게 하는 책에 대한 “노예적 의존 현상”은 인간의 삶 전반에 악영향을 주며 민주주의에도 치명적이다(누스바움 2016b, 117). 이 때문에 책은 이런 종류의 “송배와 수동성을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책은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누스바움 2018, 61-87). 이러한 이유로 누스바움에 있어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은 단순한 지성 연마의 기술이 아니라 실제의 삶의 문제들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하나의 태도임이 제시된다. 플라톤에 있어 가장 훌륭한 법과 교육은 “전반적으로 누군가가 불의는 미워하되 올바른의 성질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혐오하지는 않도록 만드는 것”(『법률』862d-e)이다. 그것은 단순히 “책상머리에 앉은 채로-논쟁하는” 기술이 아니라(누스바

움 2016b, 118), 우리를 둘러싼 현실의 다양한 환경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거짓을 구분해 낼 뿐 아니라 그 속에서 구성되는 나의 모습을 성찰해 볼 줄 아는 기술인 것이다.

2) 루소의 타자에 대한 연민

인간은 완전한 인간의 이미지를 통해 상상으로 구현되는 존재가 아니기에 인간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불완전성과 필요, 비대칭성을 이해하고 사회적 ‘동물’임을 그러나 인간성을 함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 점에서 인간은 타자에 대해서도 스스로에 대해서도 ‘공평한 관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혐오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 누스바움은 먼저 혐오감정에 대항하는 것으로 ‘(평등한)존중’과 ‘공감’에서 찾고 있는데, 이러한 감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는 훌륭한 정치적 원칙들을 뒷받침하는 애국심 및 여타 감정들의 함양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불화나 비판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독재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함양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현명한 정치적 원칙은 바로 이 극단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누스바움 2019, 8-9).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 누스바움은 존중과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론을 형성하는 정치철학적 토대들을 활용한다.

누스바움은 먼저 ‘애국심’ 함양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애국심은 정치지도자들의 수사와 깊게 연관되어있기에 정치지도자의 사고와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도자의 사고, 태도는 공감과 동시에 혐오를 일으키기도 하기에 불안하다. 뿐만 아니라 ‘애국’은 국기에 대한 명세가 그렇듯,

필연적으로 나의 국가, 우리 국가의 관념이 개입되기에 우리가 아닌 타자라는 경계를 역설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포괄과 배제의 원리가 애국 감정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애국심도 정치지도자의 공감을 향한 포괄적 수사도 쉽게 포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의는 특정한 공적 감정을 요구하는데,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주장한 것처럼 아무리 공동체가 상상된 것이라 상상하더라도 국가는 추상의 원칙이 아니기에 누스바움은 “고유한 역사나 물리적인 특징들에 의해 (나름의 구체적인)고유한 감화력을 가진 하나의 총체”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감화력이 때로는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다고 해도, 그것이 또한 공감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누스바움은 애국심도, 특정한 감정을 위한 정치지도자의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애국심이 그 자체로 타자에 대한 폭력적인 배제를 전제하고 있지는 않다. 애국심이 배제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위계적인 집단들로 국가를 갈라놓은 ‘혐오’에 그 책임이 있다. 때문에 우리는 애국심이 사회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지닌 위험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감정을 함양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누스바움 2019, 318-401).

22) 애국심의 함양은 대개 선한 정치지도자의 선한 의도에 의해 함양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런 정치지도자의 탄생만을 기다리기는 어렵고, 정치지도자도 안정적이지 않다. 때문에 그녀는 여러 저술에

22) 물론 애국심이 가진 위험성과 무비판적인 동질성, 예컨대 학교에서 요구받는 애국적인 의례들은 왜 이러한 위험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애국심을 공적 감정으로 함양해야 하는 것인지, 애국심을 포기하고 좀 더 안정적이고 신뢰한 만한 감정을 중요시하는 게 나은 선택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누스바움은 이것이 하버마스나, 롤즈의 사고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고는 ‘애국심’이 구체적 동기부여(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것이며, 자기가 가진 유일한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를 하는 것이라는 점이 간과되었다고 지적한다. 즉 롤즈나 하버마스의 과도한 추상성의 원칙이 구체적 감정인 애국심의 의미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채 매우 ‘희미한 동기부여’만을 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2019, 347-351). 그들의 시각은 애국심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중요한 조건임을 손쉽게 포기하게 만든다.

겨쳐 루소의 교육철학에 기대어 ‘감정교육’ 특히 연민을 가르치는 감정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두려움이 원시적인 형태의 감정, 반사회적인 감정이라면 연민은 우리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때문에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인간의 잠재적 역량을 위해 특별히 중요한 도덕 감정이다.²³⁾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요구 이상으로 타인을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는 능력, 상대가 무엇을 느끼고 원할지 상상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노예가 아닌 분리된 삶을 허락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절대왕정에서 민주주의적 관계로의 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이동 과정은 결코 부드럽지 않고 갑작스럽고 불확실하다. 하지만 타인의 삶을 상상하는 능력이 이를 돕는다. 어린 자신을 돌봐주는 보호자의 사랑과 친절에 대해 보답하는 일처럼.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속에 진화의 근거가 있을 것이다(누스바움 2021, 62-63).

그것은 ‘타자 되어보기’라는 상상을 통해 외적 좋음(goods of fortune)과 나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삶의 실천적 경험들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타자를 집중적 배려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누스바움 2005, 47). 다행인 것은 혐오감정이 전염과 유사성의 법칙에 따라 확대되는 것처럼 연민 역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공통된 위험에 대한 관념을 통해 확대된다는 점이다(누스바움 2018, 149). 연민에 대한 누스바움의 사고는 루소의 ‘연민’에 대한 개념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력’에 근거해 있다. 루소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연민의 감정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첫째, 고통이 심각하다는 생각. 둘째, 고통의 일차적 원인이 당사자가

23) ‘공감과 상상-비판적 태도’라는 감정교육에서 문학작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특히 『시적정의』, 『인간성수업』,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를 참고할 만하다.

아니라는 생각. 셋째, 고통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관련돼 있으며, 그래서 고통받는 극중 인물들뿐만 아니라 모든 관찰자도 같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여기에 누스바움은 고통받는 자가 우리의 ‘관심의 원’안에 들어있다는 “에우다이모니아적 생각(행복론적 생각_ eudaimonistic thought)”을 추가한다. 이러한 상상이 없다면 우리는 타자를 미천한 동물로 여겨 관심의 원 밖으로 추방하기 때문이다(누스바움 2019, 410-411). 합리적 연민은 문학적 상상을 통해 교육될 수 있으며, 특히 그리스 비극과 같은 고전문학들은 혐오감정을 극복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주장한다. 문학적 효과가 너무 감정적이거나 철학적으로 단순하다는 비평을 하는 자들에게 누스바움은 이렇게 말한다. “문학적 상상이 일으키는 공감이 즉각적인 정치적 변화를 낳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의 도덕적 가치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누스바움 2018, 153).

나아가 좋은 애국심을 갖고, 타자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갖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좋은 애국심은 비판 능력을 침묵시키지 않기에 누스바움은 비판적 시민을 형성하는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사랑으로 시작할 것, 둘째, 비판적 사고를 일찍 끌어들이고 계속해서 가르칠 것, 셋째, 다름을 포괄하는 한 방법으로 맥락에 대한 상상력을 끌어낼 것, 넷째, 과거의 전쟁을 악으로 규정하지 말고 전쟁의 동기를 알려줄 것, 다섯째, 역사의 진실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국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도록 가르칠 것이다. 나아가 헌법상의 권리와 사법부 독립, 이민자 권리 보호,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제도적인 조건들도 제시하고 있다(누스바움 2019, 391-401). 이상적인 사회는 ‘충분히 있을 법한 일들’에 대해 숙고하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정치원칙들을 지키고 확장시켜야 한다. 자유의 이름에 숨겨진 혐오와 같은 감정이 공적 감정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고, 애국심과 연민, 비판의 정신을 장려할 줄

알아야 한다. 애국심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타자에 대한 연민과 짝을 이룬다. 구체적 주체에 대한 자기애, 즉 애국심과 타인을 향한 연민이 있는 사회는 일반적으로 비판의 자유가 있는 사회다. 그러나 비판의 자유가 제거된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애국심도 연민도 사라지게 된다. 결국 누스바움은 애국심과 연민의 감정이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공적 감정이며, 정치지도자는 이 감정을 추동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만 기댈 수 없기에 다른 한편으로는 감정교육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한다. 올바른 감정의 형성은 비판의 자유를 길러주는 핵심이다. 그녀는 이 방식이 자유주의적 자유를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품위있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누스바움 2019, 321).²⁴⁾

24) 더불어 누스바움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역량의 관점으로 정의하면서 인간존엄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한 핵심역량을 10가지로 정리한다. 그것은 ①생명 ②신체의 건강 ③(선택의 기회를 보장받는)신체의 보전 ④(즐거움을 누리고 고통은 피하는)감각과 상상, 사고 ⑤(연민과 사랑, 희망과 감사, 적절한 분노의)감정 ⑥(좋은 개념을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실천이성 ⑦(타인을 의식하고 배려하는)관계 ⑧인간 이외의 종과의 공존 ⑨놀이 ⑩환경통제다. 2006, *Frontiers of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21, 『역량의 창조』, pp. 48-50.

4. 결론

누스바움은 모든 감정은 인간이 ‘자족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나르시시즘, 동물성과 유한성에 대한 기피, 정상에 대한 불안한 집착은 인간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누스바움 2015b, 578). 그러나 혐오감정은 주체에서 시작해 타자로 투사되고 정치화되면서 개인이나 집단을 계층화하고 예속화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모든 형태의 예속은 민주사회의 상호 평등한 존중, 호혜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누스바움은 일차적인 혐오감이 주체의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이것이 아무런 ‘이성적인 숙고없이’ 타자에게 투영되는 것을 투사적 혐오로 규정하고, 이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성되어왔다고 주장한다. 투사적 혐오조차도 본능적인 것이라는 혐오 지지자들에게 비판을 가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혐오야말로 합리적으로 논증될 수 없는 비합리적 감정, 타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감정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감정에 관한 평가는 어떤 사람이 특정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는 분노를 그것이 무엇을 향한 어떤 분노인지 묻지 않고, 그 감정을 하나로 묶어 평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누스바움 2015b, 143). 그 이유와 속성을 따져 물어 가치를 평가하면 분노는 마땅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분노가 있다. 그러나 혐오와 같은 파괴적인 감정은 본래 타고난 것이 아니며, 어린 시절부터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기에 그 감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평가해서 혐오를 혐오하는 사회적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누스바움은 이러한 구체적 방식

으로 '합리적인 정치심리학'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누스바움 2019, 263). 다행인 것은 혐오감정이 전염과 유사성의 법칙에 따라 확대되는 것처럼 연민 역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공통된 위험에 대한 관념을 통해 확대된다는 사실이다(누스바움 2018, 149). 혐오의 정치가 인간이 가진 두려움을 정치에 이용하는 가장 악랄한 방식이지만, 인간은 두려움의 정치에 휩쓸리지 않는 독립적인 비판 능력, 그리고 타인을 향한 연민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소중한 인간의 역량을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과제로 끌어올려야 한다. 합리적 정치심리학을 구축하는 시민교육의 핵심은 결국 '감정교육'에서 시작해야 하며, 그 방향은 "두려움에서 독립하라. 비판하라. 연민하라. 그리고 상상하라"가 될 것이다. 누스바움의 논의는 한결같이 이 감정교육의 토대를 '철학적인 것'에서 찾고 있는데, 미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 소크라테스식 논증의 민주적 유용성, 연민에 대한 루소 해석의 일부, 그리고 모든 인간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하는 칸트식 명제 등이 그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고전 철학에 대한 독해와 이해를 통해 영감을 얻고 이를 변형하고 발전시키면서 자신의 정치심리학을 구축해나갔다. 500여 편에 가까운 논문과 30여 편의 저술이라는 이 광범위한 작업이 여전히 철학의 유용성을 묻는 자들에 대한 누스바움식의 답변이 아닐까 한다.

(2023년 9월 17일 접수, 11월 18일 심사완료, 11월 19일 게재확정)

〈논문, 단행본〉

- 강용수. 2017. “‘공적 감정’으로서의 공감에 대한 연구 - 스토아주의와 자연주의를 중심으로.” 『철학탐구』. 45. 119-148.
- 고현범. 2016. “누스바움의 혐오 회의론.” 『철학탐구』. 43. 131-160.
- 마사 누스바움, 박용준 옮김. 2013. 『시적 정의』. 파주: 궁리.
- , 조형준 옮김. 2015a. 『감정의 격동』. 서울: 새물결
- , 조계원 옮김. 2015b. 『혐오와 수치심』. 서울: 민음사.
- , 강동혁 옮김. 2016a. 『혐오에서 인류애로』. 서울: 뿌리와이파리.
- , 우석영 옮김. 2016b.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파주: 궁리.
- , 정영목 옮김. 2018. 『인간성 수업』. 파주: 문학동네.
- , 한상연 옮김, 2021. 『역량의 창조』. 파주: 돌베개.
- , 박용준 옮김, 2019. 『정치적 감정』. 파주: 글항아리.
- 송희영. 2017. “히틀러의 연설, 열광과 도취의 도가니.” 『카프카연구』. 37. 147-166.
- 이혜정. 2017. “어떻게 불구국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 미국 우선주의, 백인 우선주의, 그리고 트럼프 우선주의.” 『동향과 전망』. 99. 9-50.
- 애덤스미스, 박세일·민경국(공역). 2009. 『도덕감정론』. 서울:비봉출판사.
- 임옥희. 2016. “혐오발언, 혐오감, 타자로서 이웃.” 『도시인문학연구』. 8(2). 79-123.
- 임흥빈. 2013. 『수치심과 죄책감』. 서울: 바다출판사.
- 오성. 2008. “감정에 대한 인지주의 이론의 경계 짓기: Nussbaum과 de Sousa의 논의를 중심으로.” 『철학사상』. 27. 297-315.
- 홍성수. 2019. “혐오표현의 해악과 개입의 정당성: 금지와 방치를 넘어

- 서.” 『법철학연구』. 22(3). 27-64.
- 허수미. 2012. “감정이입’을 활용한 사회과 수업 실천 전략.” 『사회과교육연구』. 51(3). 103-122.
- 카롤린 엠케, 정지인 옮김. 2017. 『혐오 사회』. 파주: 다산북스.
- Kalmoe, N. P. 2014. “Fueling the Fire: Violent Metaphors, Trait Aggression, and Support for Political Violence.” *Political Communication*. 31. 545-563.
- Karsten Müller, Carlo Schwarz, 2020. “From Hashtag to Hate Crime: Twitter and Anti-Minority Sentiment.”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15(3). 270-312
- Nussbaum, M. C. 1996. “Compassion: The Basic Social Emotion.”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13(1). 27-58.
- . 1998. *Plato’s Republic: The Good Society and the Deformation of Desire*.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 . 2012. Teaching Patriotism: Love and Critical Freedom”,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79(1).
- . 2018. *The Monarchy of Fear: A Philosopher Looks at Our Political Crisi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Piazza, J. A. 2020. “Politician hate speech and domestic terrorism.” *International Interactions*. 46. 431-453.
- Yulin Hswen, et al., 2021. “Association of “#covid19” Versus “#chinesevirus” With Anti-Asian Sentiments on Twitter: March 9-23”,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AJPH)*.
- Rozin, Paul. et al. 1998. “Body, Psyche, and Cul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Disgust and Morality”, *Psychology*

and Developing Societies 9. 108.

Waldrin, Jeremy. 2012. *The Harm In Hate Speech*, Harvard University Press. 홍성수·이소영 옮김. 2017.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경기: 도서출판 이후.

〈인터넷 사이트 및 기사〉

뉴스시스, 2020.05.05. “유엔 사무총장 "코로나19로 전세계서 혐오 쓰나미 발생”.

<https://www.news1.kr/articles/?3929243>(검색일: 2020. 09. 21)

아시아 경제, 2020.05.08. “유엔 사무총장 "코로나 혐오 발언 끝내자" 촉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50821205171957>(검색일: 2020. 09. 21)

아시아경제, 2020.04.28. “[르포]우리가 괴물입니까?" 코로나 100일, 대립동 할퀸 혐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42810414902197>(검색일: 2020. 09. 23)

중앙일보, 2020.05.05. “아시안 코로나19 혐오범죄 방지 글짓기 대회.”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266757(검색일: 2020. 09. 23)

조선일보, 2023.9.22. “국경에 악어 푼다? 독설 밈 뿌린 트럼프, 반이민 정책 보니.”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9/22/AOTAMPQRNBCFFLLDZILV2RQSUY/(검색일: 2023. 11. 17)

행정안전부. <http://ncov.mohw.go.kr/>

huffpost, 2016. 7. 21. “It’s Donald Trump’s Party Now.”

https://www.huffpost.com/entry/trump-republican-nominee_n_579167e1e4b0bddd4d3f03c(검색일: 2023. 11.21)

Abstract

How do hate emotions become political: Reconstruction of Martha Nussbaum's t hate emotion and implications for civic education

*Hwang okja**

This article explores how a political philosopher who looks at crises of community through the lens of 'disgust', an emotion that is deeply involved in inequality in our society, but has not been adequately captured, should use his or her imagination. To do so, we reconstruct Nussbaum's (Martha C) concept of 'disgust', which has been used to value and apply 'emotions' in all areas of law, politics, philosophy, literature, and ethics. Specifically, it introduces how emotions intervene in social justice in the rational public sphere. Through Nussbaum's narrative insight into disgust, this study ultimately reconstructs disgust and discusses the political and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disgust as an irrational emotion that makes empathy and coexistence impossible. Finally, I propose the importance of 'emotion education' as an

* Research Prof, Social Science Rese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al alternative.

keyword: Nussbaum, Martha C, disgust, emotion education,
Emotion-based citizenship education, Socrates,
Jean-Jacques Rousseau